

## "3D 프린팅, 컨설팅, 도면설계 등으로 바빠요"

코로나사태로 '방콕'하는 대학원생 조일호군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어놓았다. 대학생들도 예외가 아니다. 캠퍼스를 떠나 집으로 돌아와 온라인수업에 임해야했다. 방콕(방에 콕 박혀 있음)하는 생활이 좀 갑갑하지 않을까?

BC주 캐모스대학에서 엔지니어 공부를 하다 켈거리 SW 부모집으로 돌아와 있는 조일호군(24)은 전혀 다르다. 3D프린팅 등으로 바쁘다. 지금은 오프라인시대가 아니라 온라인시대가기 때문이다. 아나로그 세대인 기자가 디지털 세대인 조군을 만나보았다.

Q : 집에서 3D 프린팅을 한다고요?

A : 본격적인 비즈니스로 하는 게 아니지만 한국 일본 호주 미국에서 주문이 오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하지않는데 SNS등을 통해 어떻게 연락이 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외에 제작장비인 3D프린터가 두대 있고 기타 관련 기구들이 있습니다.

주로 플라스틱 소형 부품이나 조형물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장비구입에 2천달러 정도 들었습니다. 작업은 주로 지하실에서 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사태로 공장이 많이



문을 닫인지 최근에는 주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속을 다루려면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가 크고 비싸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흔히 "총도 만들어 주느냐"는 농담도 들었습니다.

Q : 3D 프린팅이 유망한 분야라지요. 기술도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고요.

A : 3D프린팅이 대중화되면 산업혁명급 대격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조업을 넘어 건설 의료등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가령 병

원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 3D프린터로 뼈를 출력해서 수술하고 장기를 출력해서 이식하는 공상만화같은 일이 현실화됩니다.

건축분야에서도 이미 3D프린팅 기술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콘크리트 곡선성형 작업을 3D모델링 기술과 3D프린팅 출력기술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Q : 어머니로부터 여러가지로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 : 아버지가 리모델링사

업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D디자인을 하나까 수주 견적낼 때 제시하는 설계도면도 만들어주고요. 아버지는 파이프라인 설계일을 하셔서 2차원 CAD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3차원 CAD를 씁니다. 파이롯(비행사)에도 관심이 많아 자격증 취득을 위해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있습니다.

또 reddit.com 등으로 부터 들어오는 미케니컬 디자인 아르바이트도 합니다. 그런 경우 시간당 40-50불씩 받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밖에서 사업을 찾고 하고 계신데 저는 시대가 달라져 새로운 일은 온라인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죠.

Q : 전공은 어떻게 됩니까?

A : 애드먼튼 켈거리대학에서 미케니컬엔지니어링을 공부했습니다. 공이 안좋아 SAIT로 옮겨 졸업하고 UBC 대학원에 가려고 지난해 BC주 빅토리아 컴머스 대학으로 갔습니다. SAIT에선 병원 Xray 촬영할 때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로봇팔 설계를 했는데 인도공영방송이 어떻게 알고 와서 지난 2월 인터뷰 하자고 했는데 토론토까지 오라고 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Q : 전공이 취미하고 연결이 됩니까?

A : 어릴 때부터 만드는 것

을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는 우주비행사가 되고싶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자리란 별자리란 모두 알게되었지요. 그러다가 무릎을 다쳐 수술하는 바람에 포기했습니다. 우주비행사는 몸에 흉터가 있어도 안됩니다.

3D프린팅도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고 전공과 관련되니까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나 업무를 보면 그것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시스템을 항상 생각합니다.

한번은 켈거리 한인회에서 공연을 하는데 오디오 장비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공연 관계자들이 절절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자원해 가서 매뉴얼을 보며 시스템을 파악해 오디오 기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로서 취미이기도 하고요.

Q : 집안에만 있으면 사회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우려되는데요.

A : SNS를 통해 많은 소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케니주지사가 의료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이나 석유산업에만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대해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반대 의사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Reddit.com 커뮤니티에 참가하는 켈거리인들이 10만명은 될 것입니다.

(Yul Kim 편집위원)

## '진짜 믿음' 소망할 때, 성경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

큰 믿음, 진짜 믿음  
디즈니만이 하는 것  
로버트 아이거 | 안전한 역  
셈앤퍼커스 | 416쪽 | 19,800원  
선물이든 믿음이든 큰 것보

다진짜가 중요해  
아나니아와 삽비라, 큰 믿음 원했지만 '가짜'  
큰 것만 고집하다, 진짜 소중한 본질 놓친다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큰 것보다 진짜가 좋다. 선

물도 큰 것보다 진짜가 좋다.  
신문 기자였다가 작가로 활동하는 유인경은 친구에게 명품 지갑을 선물받았다. 평소 친한 여성이 프랑스 파리를 다녀오면서 신상이라고 건네준 것이었다.

감사한 마음에 집에 돌아와 지퍼를 여는데, 지퍼가 떨어져 나갔다. 정품에 있는 품질보증 카드도 없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박음질도 엉성한 짚통이었다.  
선물 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중국 면세점에서

사서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파리 본점 매장이 중국 면세점으로 바뀌었다. 유인경은 끝까지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친구에게 실망했다고 말한다. 큰 선물을 주고 싶은 친구의 마음은 알겠지만, 큰 것보다 진실한 선물이 더 좋다.

믿음도 크기보다 진실이 중요하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큰 믿음을 원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믿음을 보이려고 했다. 누가 봐도 큰 믿음이다.  
(...3 페이지에서 계속)

힘내세요! 한인 여러분. 코로나 재난 함께 이겨냅시다!

**캘거리 한인회**  
Calgary Korean Association

캘거리 한인회  
회장 : 구동현  
주소 : 7008 Farrell Rd SE, Calgary AB T2H 0T2  
전화 : 403-216-4600  
이메일 : cka0607@gmail.com  
웹사이트 : http://calgarykorea.com

**캘거리한인노인회**  
Calgary Korean Seniors Association

캘거리 한인 노인회  
회장 : 안길웅  
연락처 : kilungahn@hotmail.com

자매 단체 노인 대학

**캘거리 한인 여성회 / 코리아 아트 클럽**  
회장 : 고경숙  
주소 : 3530 11a St NE #4, Calgary, AB T2E 6M7  
전화 403-861-8231  
kyoungsookko@gmail.com, heejo  
웹사이트 : calgarykoreanwomen.com

캘거리 한인회 소속 자원 봉사 단체

**도움 나눔**  
Calgary Volunteers

SNS와 온라인으로 소통합니다

캘거리 역사상 최대 규모 네트워킹 행사  
♠ 청춘학개론 ♠

Instagram : dowoom.nanoom

**캘거리 실업인 협회**  
Calgary Korean Unemployed Association

캘거리 실업인 협회  
회장 : 박홍재  
이메일 : kcba@live.ca  
전화 : 403-258-1161  
웹사이트 : www.calgarykcba.com

캘거리 한인양로원 건립  
실업인협회도 후원합니다

**캘거리한인장학재단**  
Calgary Korean Scholarship Foundation

캘거리 한인 장학재단  
이사장 : 길이룡  
전화 : 403) 567-0402  
이메일 : hyunjucho@hotmail.com  
웹사이트 : http://www.calgaryksf.org/

캘거리한인장학재단은 백만불 재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유연장 서명 캠페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